파괴신 왕의 군검 아레스

썰어버리는 군기(하르페): 순식간에 대상을 쉽게 절단시키는 예리한 검

모양세는 기존 양날검에 낫형태날이 삐쭉이 튀어나온 디자인이다

아레스는 전쟁신으로서 언제나 승리를 쟁취하길 좋아했으나 성질이 급하고 싸움과 폭력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언제나 전략면에서 아테나에게 밀리기였다 그런 굴욕을 무마한 것이 티탄족과의 싸움에서 사용한 하르페였다.